

나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보고서

2003년 11월 ~ 2004년 10월

가계부

"풍성함에서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서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아름다운재단 자원사업 보고서 2003년 11월-2004년 10월

나눔가계부

05	나눔가계부를 펴내며
06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
10	아름다운재단 기금현황
14	기금영역별 지원사업
14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20	교육지원사업
24	여성지원사업
27	장애지원사업
30	문화지원사업
34	공익지원사업
39	기획지원사업
44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48	2004년 주목할 만한 지원사업
55	전화위복의 지원사업
57	ing...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
55	지원사업, 숨겨진 뒷 이야기
67	참여하는 나눔사업
70	아름다운재단 기금별 모금·지원금액
75	책을 덮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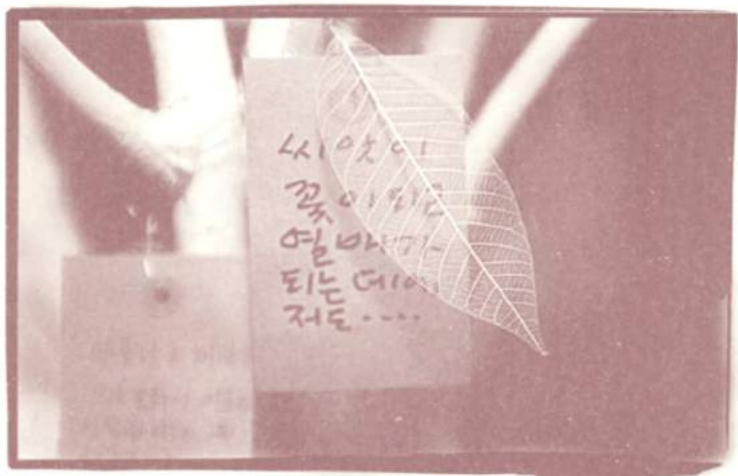
• 2004 나눔가계부 본문에 나오는 지원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신상보호를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버는 것은 돈이지만, 나누는 것은 마음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풍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의 어느 한 편에만 흘러 넘치는 풍요로움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낙오한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낙오한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가 정의롭게 풍요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조금씩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버는 것은 돈이지만, 나누는 것은 마음입니다.
 버는 데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게 돈쓰는 사회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세상에서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씬씀이를 담았습니다

알뜰살뜰 흐뭇한 가계부,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팍팍하기만 서글픈 가계부, 조금만 더 아껴쓸 것을 아쉬움만 남는 가계부. 가계부의 좁쌀만한 숫자속에 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나눔가계부를 펴냈습니다. 나눔가계부를 만들며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까지 적어 넣으셨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미래를 생각하며 재테크와 자산관리까지 담아내는 신세대 부부의 지혜를 담으려 했습니다.

다른 집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아쉬움과 반성이 함께 묻어나지만, 그래도 기부자님의 귀한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쓰임새를 되짚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부자님의 많은 참여가 있었기에 2004년은 지난해에 비해 지원사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해엔 더 알찬 내용의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많은 숙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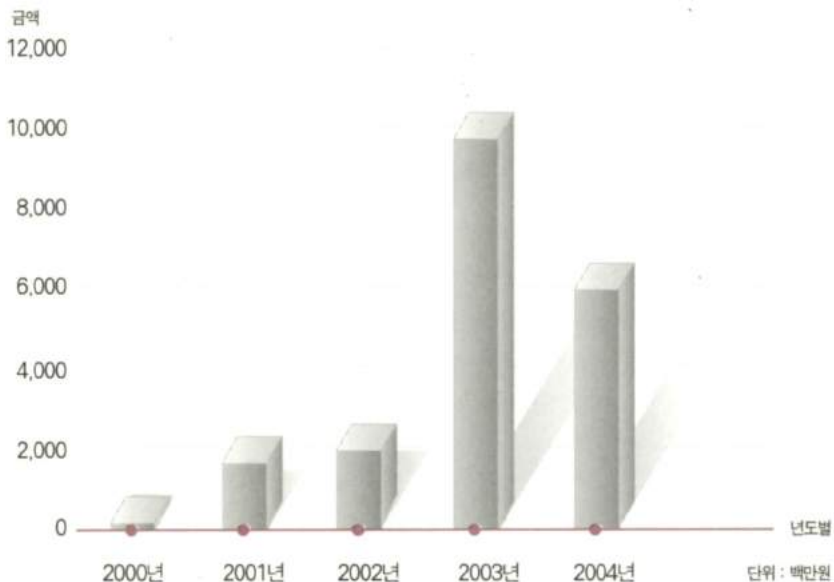
집집마다 지난해 가계부를 돌아보며 새해 알뜰 살림을 다짐하듯이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가 기부자님의 새해 나눔약속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돈을 쓰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모금총액

2004년 10월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기금 기부금	143,070,494	1,349,503,485	1,812,738,879	10,424,907,308	5,872,011,541	19,602,231,707
운영 기부금	557,774,039	218,285,413	538,045,046	860,801,902	755,265,385	2,930,171,785
계	700,844,533	1,567,788,898	2,350,783,925	11,285,709,210	6,627,276,926	22,532,403,492

단위 : 원



〈아름다운재단 모금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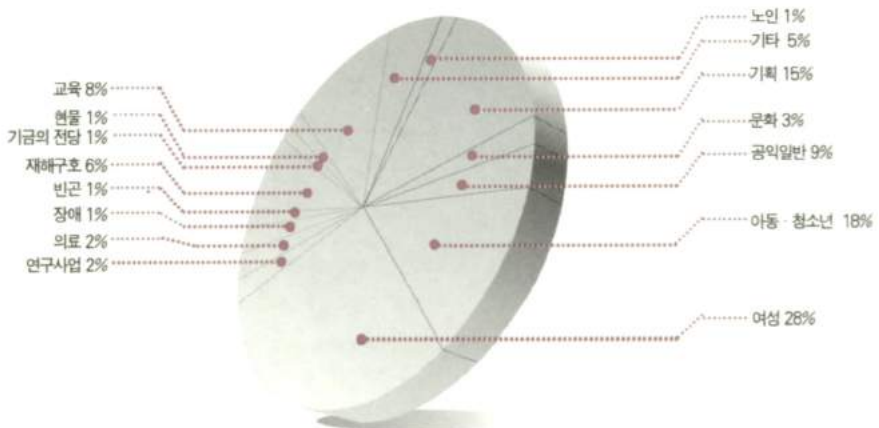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금영역별 모금총액

2004년 10월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비율
공익일반	-	1,001,020,000	157,463,860	332,115,736	264,543,262	1,755,142,858	8.95%
교육	54,381,930	47,958,080	60,720,000	415,340,871	1,071,880,971	1,650,281,852	8.42%
기획	12,688,564	108,400,451	271,377,392	1,166,626,809	1,306,269,506	2,865,362,722	14.62%
노인	-	-	-	142,163,095	142,288,521	284,451,616	1.45%
문화	-	-	-	397,434,877	88,806,4235	97,241,300	3.05%
아동/청소년	-	79,829,790	783,566,080	1,364,962,334	1,296,002,110	3,524,360,314	17.98%
여성	31,000,000	-	101,360,000	5,233,475,235	73,186,338	5,439,011,573	27.75%
연구사업	5,000,000	-	60,605,000	91,194,500	207,412,720	364,212,220	1.86%
의료	-	-	10,000,000	2,077,000	288,707,200	300,784,200	1.53%
장애	-	-	35,908,700	32,244,820	200,536,314	268,689,834	1.37%
빈곤	-	-	-	160,638,420	48,462,231	209,100,651	1.07%
재해구호	-	-	-	1,085,356,142	140,000	1,085,496,142	5.54%
현물	-	39,258,572	45,469,600	12,405,850	129,936,945	227,070,967	1.16%
기타	-	10,000,000	22,062,790	17,327,000	753,829,000	803,218,790	4.10%
기금의전달	40,000,000	63,036,592	153,215,457	-28,455,381	10,000	227,806,668	1.16%
계	143,070,494	1,349,503,485	1,812,738,879	10,424,907,308	5,872,011,541	19,602,231,707	100%

* 기금의전달 기금은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소멸된 기금입니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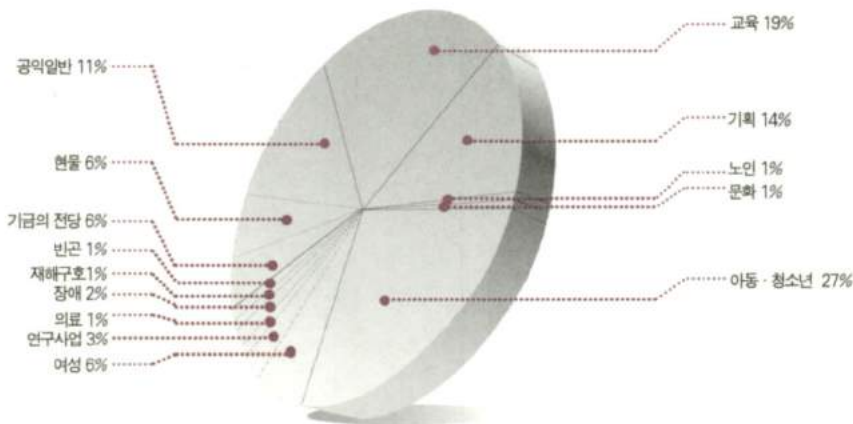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금영역별 배분지원비

2004년 10월 기준

기금영역	기금 모금 수입					배분계	비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공익일반	-	-	53,404,792	73,997,645	212,551,146	336,902,343	10.60%
교육	-	22,860,300	-	206,783,427	368,827,001	598,470,728	18.84%
기획	-	-	27,205,080	291,995,052	124,896,371	444,096,503	13.98%
노인	-	-	-	7,425,000	37,573,621	44,998,621	1.42%
문화	-	-	-	3,950,000	40,820,865	44,770,865	1.41%
아동/청소년	-	-	158,002,813	271,339,657	415,450,883	844,793,353	26.59%
여성	-	-	-	167,000	174,780,253	174,947,253	5.51%
연구사업	-	2,891,800	52,706,916	2,036,344	22,142,473	79,777,533	2.51%
의료	-	-	-	-	45,697,254	45,697,254	1.44%
장애	-	-	-	13,200,000	65,000,000	78,200,000	2.46%
빈곤	-	-	-	3,051,240	34,945,230	37,996,470	1.20%
재해구호	-	-	-	42,000,000	-	42,000,000	1.32%
현물	-	30,460,000	33,880,000	11,405,850	125,096,945	200,842,795	6.32%
기금의전당	-	67,096,730	136,346,207	-28,440	-	203,414,497	6.40%
계	-	123,308,830	461,545,808	924,271,535	1,667,782,042	3,176,908,215	100%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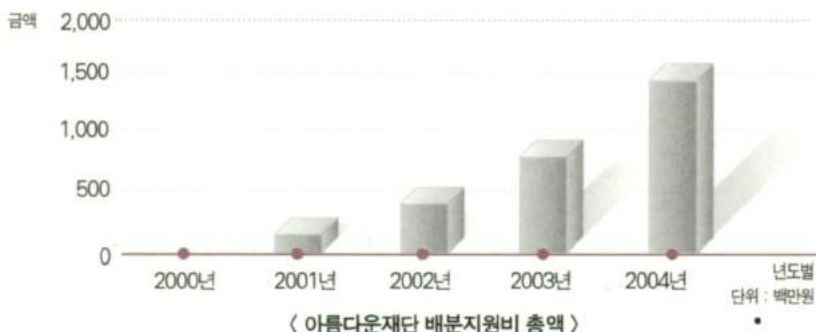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지출총액

2004년 10월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경상운영비	41,091,450	148,853,811	388,771,746	662,145,361	833,193,257	1,815,244,860
기타사업비	51,106,827	125,337,457	305,975,209	347,268,852	453,009,769	1,282,698,114
배분지원비	-	123,308,830	461,545,808	924,271,535	1,667,782,042	3,176,908,215
계	92,198,277	397,500,098	1,156,292,763	1,933,685,748	2,953,985,068	6,533,661,954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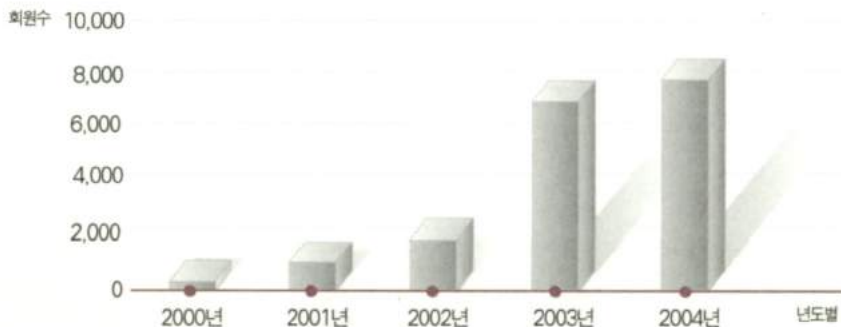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1% 기부자

2004년 10월 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1%나눔회원수	349	1,287	2,134	7,623	8,627	20,020

단위 : 명



아름다운재단 기금 현황

영역	기금명	지원영역
기획	1% 기금	지역 풀뿌리단체의 활동 지원
	나눔의 복덕방	지원이 필요한 곳과 지원하고자 하는 곳 중개
	멀치한상자기금	실직노숙인을 위한 지원사업
	SOS 기금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한시적 긴급 모금
재해구호	E-아름다운 기금	재해발생시 구호사업 지원
공익일반	의인 기금	공익과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의인 발굴 및 육성
	소급창고 기금	정의를 위한 행동을 실천한 공익제보자 발굴
	심산활동가 기금	지속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한 활동가 및 단체 발굴, 시상
	등불 기금	환경미화원과 소방공무원의 복지프로그램 지원
	내일을 위한 기금	공익단체 활동가의 교육과 재충전 지원
	공익변호사 기금	공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 지원
	녹색꿈나무 기금	환경단체실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공익출판기금	공익관련 서적의 저술 및 출판 지원
	국제NGO연대기금	시민단체의 국제연대활동 지원
	더불어숲기금	국제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지원
	청년동자기금	청년NGO 인큐베이터 '한국청년센터' 건립지원
	최달석목사를 추모하는 기금	미국법정에서 일본군 강제징용 관련 소송비용 지원
빈곤	빛한줄기희망기금	저소득 단전가구 전기료 지원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소외아동, 청소년의 여행 지원
아동·청소년	한국의 대니서 만들기 기금	자발적인 청소년 사회문화운동 지원
	오필승 코리아 기금	소외아동, 청소년 축구활동 지원
	솔 기금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 지원
	하리기금	소외아동의 특기교육, 정서안정 프로그램 지원
	희망특공대	소외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환경개선과 기자재 지원
	소원우체통	소외아동의 소원 이루기 지원
	푸른세상을 여는 기금	소외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체험 및 하늘정원 지원
	휴머시기금	휴머스에서 선정한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학상장애인 지원
	론스타푸른별기금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의 교육 및 학업보조금 지원
	BIG지기 기금	소외아동 및 청소년 IT 지원
	꿈틀 기금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등록금 및 체납등록금 지원
	아름드리 기금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특기 교육 지원
교육	EG 기금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의 교육 지원
	메가스터디기금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온라인교육 지원

영역	기금명	지원영역
교육	김군자할머니 기금	보육시설특소, 소년소녀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로레알코리아기금	보육시설특소, 소년소녀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성아앤지 한길기금	보육시설 특소, 소년소녀가정의 이공계대학생 등록금 지원
	교보생명 희망 장학금	보육시설특소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덕테크노밸리 장학기금	대전지역 출신의 이공계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현대모비스 기금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현대천사랑 기금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주경아독 기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등록금 지원
장애	송진우 기금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이철 헤어커커 기금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선희샘물기금	저소득계층 개안 수술 지원
	SKT 아름다운통학기금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지원
	대웅제약 웃음이 있는 기금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놀이터 지원
여성	탁아기금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보육 지원
	당신의 햇살기금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건강권 확보 지원
	아름다운세상 기금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 여성가구의 창업 지원
노인	홀로사는 노인지원 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은빛 거자씨 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hbc사랑나눔 기금	저소득 치매 노인 가구의 생계보조금 지원
	마이너스 건강기금	무의탁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의료	건강한 이세상 기금	저소득 계층 아동 및 노인 치과 진료 지원
	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 기금	저소득 계층 미숙아 치료비 지원
문화	행복한 염표 기금	문화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
	유향숙의 섬기금	신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꿈꾸는 나무 기금	소외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체험 지원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거 기금	작은 도서관 도서관지원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연구사업	연꽃기금	상속문화 확산 지원
	기부문화연구소기금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소 운영비
	유한킴벌리	기부문화지수(Giving Index) 조사, 연구, 발표를 위한 지원
	류무종아카이브 기금	기부문화관련 연구사업 지원
기타	행복한 동지기금	유기동물보호단체 지원
	이한태기금	소외계층 지원
	신한지주회사금융기금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등 지원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보고서 2003년 11월-2004년 10월

2004년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을 위해

총 1,667,782,042원을 지출했습니다.(10월30일 현재)

2004 나눔가계부에는 각 지원사업 영역별로

새롭게 시작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요약, 정리해 실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환한 웃음이 피어나기를

꿈과 희망으로 자라나야 할 미래세대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편견 때문에 삶의 팍팍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동·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끼 밥만이 아닙니다. 또래의 친구들이 누리는 환경과 체험의 기회들, 이것이 이들에게 또래의 친구들과 공감하며 미래세대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소외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의 마련에서부터 문화정서적 체험기회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_ 소외아동과 청소년의 여행프로그램 지원

희망의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여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남의 일이라 여겼다. 에이즈 말기 환자를 돌보는 캄보디아의 호스피스 센터에 가보고, 장애인 학교에 가보는 모든 경험이 나에게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지극 지극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나도 싫었던 나. 하지만 이제 돌아가고 싶다. 아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 높고 높은 프놈펜의 하늘처럼 내 꿈도 멋지게 날려 봐야지!”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으로 캄보디아 자원봉사를 다녀온 한 청소년이 쓴 글〉

바다처럼 드넓게, 산처럼 당당하게, 들녘처럼 푸르게,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은 넓은 세상으로의 꿈을 키워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땀별 아래를 걸으며, 이 땅 구석구석을 순례하면서 오랜 상처가 걷히고, 열등감을 대신하는 해맑은 웃음과 희망 하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 꿈과 낭만, 도전과 모험, 용기와 책임, 우정과 협동을 키워가는 것이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의 바램입니다.

2004년 길위의희망찾기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성동희망나눔 외 20개 단체	전국	64,475,410원	2004년 7월	소외아동·청소년의 국내외 여행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에서도 세상을 배운다

고등학교 꼴찌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대니서. 그러나 세계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격찬을 보냈습니다. 세계가 격찬하는 젊은 환경운동가 대니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열두살 어린 소년의 환경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고 지원해주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Do Something”은 지역사회에서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차세대 지역사회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니서 만들기 기금”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기보다, 교과서속 지식을 익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숨쉬며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청소년을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향해 첫발을 떼는 청소년들, 변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노력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들의 작은 실천에서 우리는 희망을 읽습니다.

2004년 한국의대니서만들기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하자센터 소속 청소년 2명	서울	1,000,000원	2004년 6월	태국 'whispering seed' 공동체살림 참여 및 문화작업 기획
청소년 동아리 나마스테	서울	1,000,000원	2004년 6월	2004년 청소년연극축제기획단 2기 활동

하라기금 _ 빈곤지역 소외아동의 특기교육 지원

달나라만큼 학원에 가고 싶어요

하늘의 별 만큼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나이입니다. 지나친 사교육 열풍이 아이들을 해친다는 우려의 다른 쪽 끝목에는 학원이 달나라만큼 가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원은 그냥 학원이 아닙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이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아이들이 그들로 내려앉지 않게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하라”는 의미의 “하라기금”은 아이들이 꿈과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하라기금”을 출연한 서미숙님은 2001년부터 하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2년여 동안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약 4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학업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재단을 정리, 아름다운재단에 “하라기금”으로 위탁해주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더 크고 깊은 선의를 행하고자 했던 서미숙님의 뜻, 지금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지역단체의 보호하에 원하는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하라기금 가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데려사의집 외 11개 단체 및 개인	전국	11,173,700원	2004년 3월~10월	저소득아동·청소년 생활안정 및 학업보조금 지원 아동복지단체 운영후원
저소득가정 아동 10명	경기	3,699,000원	2004년 8월~10월	빈곤지역 저소득가정 아동 특기정서교육지원

12평 영구임대아파트가 궁궐?

달동네에서 임대아파트로 옮겨 왔지만 또다시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는 삶, 가난은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생계비 중 주거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이들은 과도한 주거비 지출에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잃거나 아니면 열악한 주거환경 속으로 내몰려 건강과 탈선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12평 영구임대 아파트를 궁궐이라고 말하는 아이들, 주거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권리이며 생명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술기금”은 부엌조차 없고, 이동식 공동화장실에, 햇볕이 들지 않는 습기찬 방, 비만 오면 넘치는 하수구, 유해물질로 오염된 실내공기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정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교육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입니다. “술기금”은 주택이 상품이고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요즘,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2004년 술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실질적소년소녀가정 61명	전국	17,239,130원	2004년 7월	영구임대아파트 체납관리비 지원
실질적소년소녀가정 57명	전국	9,024,640원	2004년 8월~10월	영구임대아파트 월임대료 지원

소영이의 지상의 방 한 칸

소영이. 까만 단발머리에 웃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밝고 명랑한 중학생입니다. 소영이가 아버지와 고등학교 1학년인 언니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해 온 것은 약 10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영이가 7살때 가출하셨기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뇨로 10년째 고생중인 아버지는 이제는 합병증인 족부궤양으로 걸음도 불편하고, 위장병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리에 누워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영이와 언니가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으로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집안살림을 나누어 맡아온 지 벌써 10년.

학교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공부에도 열심이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은 소영이는 남들처럼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지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매달 정부에서 주는 생계보조금 60만원을 아껴쓰며 노력하지만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우선 내고나면 1년에 한두번씩 두세달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임대아파트를 차압한다는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소영이는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기전 살았던 지하단칸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곰팡이냄새가 유난했던 작은 방, 그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한웅큼 햇살만을 기억하고 싶은 지하생활. 관리비가 자꾸만 연체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지하셋방으로 떠나야 하는 소영이네 가족. 아름다운재단은 소영이에게 지난 6개월간의 체납된 관리비와 임대료 1,034,800원을 지원했고, 올 연말까지 월 임대료 4만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을 지피는 작은 불씨

빈곤은 또다른 빈곤을 낳고, 그 빈곤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그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육지원사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제공과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둬드는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배움의 의지가 꺾여질 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을 때, 아름다운재단이 배움으로 빈곤과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군자활머니기금 _ 보육시설퇴소 및 소년소녀가정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퇴소 청소년들은 400여명, 이 중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고작 230명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까닭은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시설 문을 나설 때 이들이 받는 자립정착금은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그나마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해 2인 1세대 기준으로 2천 5백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 받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 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대학을 계속 다니기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까닭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꿈을 접는다면,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찌감치 억척같은 삶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김군자활머니기금”은 시설퇴소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4년 김군자활머니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보육시설퇴소 및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11명 전국	16,084,500원	2004년 8월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장학금

친구야, 학교가자!

우리의 학교가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키워가는 튼튼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낙오되지 않고 학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매년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학교를 단지 학비가 없어서 다닐 수 없다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이들에게 너그럽기 보다는 편견과 차별을 앞세웁니다.

1년 130만원 남짓하는 고등학교 등록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밀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을 위해 “꿈틀기금”이 체납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지 학업중단의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면, 그들을 지원하는 작은 손길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밑그림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꿈틀기금”은 등록비가 없어 학교를 갈 수 없는 고등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정보제공과 취업활동까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꿈틀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17명	전남·경남	66,599,430원	2004년 2월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의 체납등록금 및 장학금

꿈 꿀 수 있는 틀, 희망의 몸짓으로 꿈틀꿈틀

기식은 1등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성적은 나날이 떨어지고,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은 기식이 하루라도 학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학생으로 추천했습니다.

차비가 없어 1시간 넘게 걸어다니며 통학을 하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학생, 판소리에 재능이 많아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였지만 가정형편상 소리공부를 할 수 없어 재능을 숨기고 있는 학생, 졸업을 코앞에 두고 밀린 등록금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합격한 대학에 입학할 엄두조차 못내는 학생,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학생, 고등학교 졸업도 힘들기만 한 우리 청소년의 모습입니다. 또한 꿈틀기금이 지원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들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했다면 이들의 앞날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 하나가 빠진 징검다리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제자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학생을 추천한 어느 담임선생님의 마지막 말처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벽입니다. 117명의 꿈틀기금 장학생들, 숫기없이 자기소개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그래도 곳곳이 공부하고, 자기 길을 찾았다고 소리높여 소식을 전해줄 때면, 꿈틀기금이 비록 발 앞에 돌맹이 하나 놓아주었을 뿐이지만 이것이 어찌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었을까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쌤님요! 치 창규입니데이. 보고싶어서예. 저 취직했써예. 앞으로 열심히 살겁니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이 증가하면서 네 집 건너 한 집은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 여성한부모가정이 80%.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한부모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성가장들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교육 등 두사람이 함께 나누던 책임을 모두 혼자 맡게 되면서 과중한 부담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은 혼자 뛰어넘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여성지원사업은 빈곤과 차별속에서 삶의 곤궁함을 온몸으로 부대껴 내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자립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햇살기금 _ 한부모가정 여성가구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

어머니, 당신에게 건강과 미소를

“당신의 햇살기금”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여성가구주 29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검진결과 유방암 1명, 유방의 물혹 5명, 자궁근종이 15명이었으며, 난소에 근종이 있는 어머니는 6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8명이 골밀도 감소증, 당뇨가 있는 어머니가 4명, 대부분의 어머니들에게서 만성위염, 신우염, 빈혈, 고혈압 등의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30%를 넘는 어머니들이 관절염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한부모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이 여성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도 당장의 생계를 위하여 생활터전으로 나가야 하며, 병원비가 두려워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것이 여성가장들의 한결같은 상황입니다. “당신의 햇살기금”은 힘겹게 생활을 지탱해 가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종합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04년 당신의햇살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29명	전국	12,423,793원	2004년 3월	저소득 모자가정 근로여성 종합검진 및 치료비 지원
유방암진단을 받은 저소득모자가정 여성가장	서울	5,850,000원	2004년 7월	유방암 수술치료비 및 생계지원금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종합검진 결과 유방암 3기로 밝혀져 지난 3월 수술을 받은 지현어머니. 몇해전 남편이 가출한 뒤 혼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현어머니가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낀 것은 1년도 넘었지만, 진료비 때문에 선뜻 병원에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병원이 두렵기만 했던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던 날,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현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이후, 아름다운재단은 “한어머니를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수술과 항암치료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생계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긴급모금에는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지원한 치료비 300만원과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2,850,000원이 모였습니다. 이외에도 울산사랑살은교통봉사대에서 보내준 상황버섯 액기스 2박스를 비롯해,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라는 격려의 메시지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지현어머니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지현어머니는 수술 후 18일간의 입원을 거쳐 건강을 회복하여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왼쪽 팔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가벼운 짐을 드는 것조차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항암치료도 끝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기검사만 받고 있는 지현어머니. 머리카락의 반이 없어졌지만,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12% 정도로 추산되는 장애인, 어떤이들은 그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세상에 나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이들은 그들의 움직임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상을 느끼지도 못한 채, 숨쉬는 한평생을 정해진 공간에서 살아야 할까요? 신체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속에, 권익을 뒤로 한 채 제약된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의 하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장애인들이 사회속에서 비장애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서부터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기회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어깨걸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눔으로 세상의 빛을 전합니다

세상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소리와 손가락의 촉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약 29만명, 저시력인은 5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안과수술로도 시력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65세이상의 일부 저소득 시각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100만~2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없어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안수술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등의 안과수술로 시력을 회복하거나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흔한 백내장의 경우, 수술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 안과의원에서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흔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녹내장이나 망막증의 경우에도 조기수술을 받을 경우, 실명을 예방하거나 실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눈은 세상과 처음 소통하는 통로이자 세상을 배우고 익히는 통로입니다. "선희샘물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는 저소득층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며 잃어버린 시력과 함께 눈 속에 담고 있던 꿈을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선희샘물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65세 미만의 실명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16명	전국	50,000,000원	2004년 8월~10월	실명예방재단을 통한 개안수술 지원

빛을 잃은 이들에게 샘물처럼 솟는 작은 기적

“올해들어 엄마가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지난 달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일을 잡았으나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아름다운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캄캄한 세상에서 환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엄마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김장섭님. IMF시기 사업의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가솔로 가정은 해체되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병인 당뇨병도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눈이 실명되기에 이르렀고, 안구의 위축까지 발병해 지금은 정부지원금 40만원으로 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장섭님은 직업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실명과 안구위축으로 번번히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직도 삶에 강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김장섭님에게 선희샘물기금으로 수술의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희샘물기금은 2002년 이영경님이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 1천만원을 기부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이영경님의 부모님 함자에서 한 글자씩 딴 “선희”와 빛을 잃은 이들에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기금을 “선희샘물”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여기에 한평생 알뜰살뜰 살림하며 사고 싶은 것 있을 때마다 그 만큼 저축하여 모았다는 익명의 기부자님과 시각장애로 살다 떠난 오빠 권문기님이 남긴 유산을 기부하신 동생 권은정님의 마음이 보태어져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삶 속에 전해지는 마음의 울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읽었던 책의 한 줄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고, 언젠가 감상했던 영화, 관람했던 연극 한 편의 장면에서 커다란 감동과 위안을 얻습니다.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교훈과 추억이 되어 오랫동안 한 사람의 일생에서 긴 여운을 남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지역적인 제한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체험도 복지입니다. 아름다운재단 문화나눔은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에게는 딱딱한 일상속에 쉼과 안식, 마음의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가난한 공익활동가들에게는 문화나눔을 통해 문화적 소양과 상상력으로 그들의 활동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겨 기금 _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혼자만 책보면 재미없어요

집집마다 음식 하나씩 준비하여 소박하지만 맛깔스런 잔칫상이 준비됩니다. 분천분교 아이들은 들뜬 마음에 하루 종일 공부느커녕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들락날락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분주하고,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중학교에 가있는 언니, 오빠들은 “학교 다녀올 때까지 끝내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고 학교를 갔답니다. 이렇게 마을이 시끌벅적한 것은 오늘이 바로 마을 주민이 모두 십시일반하여 만든, 그렇게도 소망하던 마을 도서관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지역, 도서벽지, 산간오지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마을 작은도서관입니다.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겨 기금”은 매달 한 곳씩 마을 작은도서관에 가장 좋은 책들을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을 꾸러가기 위해 필요한 책장이나 의자, 소프트웨어 등의 물품을 함께 전달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작은 도서관에 새 책 냄새에 설렌 웃음소리가 잔잔히 전해집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작은 도서관을 위한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겨기금”의 기분좋은 책배달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4년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겨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분천마을도서관 외 7개 작은 마을도서관	전국	26,302,015원	2004년 4월~10월	작은 마을도서관에 도서 및 기자재 별학교, 순학교 등 프로그램 지원

행복한임표기금과 꿈꾸는나무기금 _ 지방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문화체험활동 지원

지역문화에 날개달기

전국 국공립 도서관 400여개, 공연장 150여개, 박물관 50여개, 문예회관 90여개 중 90%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6대 광역시의 경우, 주민 2명 중 1명꼴로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장을 찾은 데 비해 군지역주민은 6명에 1명꼴로 공연장을 찾는다고 하니, 지역에 따른 문화소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1만명당 공연예술행사 수는 서울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이 8.5건, 비수도권이 1.6건으로 5배이상의 격차를 보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화편중현상도 심각합니다.

“행복한임표기금”과 “꿈꾸는나무기금”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약된 지방의 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체험이라는 작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 잃어버린 문화생활의 즐거움, 그렇기에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나눔도 다른 어떤 나눔과 마찬가지로 귀한 것입니다.

2004년 행복한임표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강원여성센터 외 5개 단체	전국	7,218,850원	2004년 7월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소외계층의 문화나들이 및 공연관람

2004년 꿈꾸는나무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철암어린이공부방 외 7개 단체	전국	7,300,000원	2004년 7월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문화나들이 지원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쉽표를 꿈꾸다

연극이란 것이 어떻게 공연되는지도 몰랐고, 연극을 보러갈 여유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이야. 모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는 연기를 보며 엄마 생각이 떠올랐다. 늦기 전에 엄마에게 내 아픔을 얘기하고, 풀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힘들게만 살아온 시간 속에 작은 쉽표를 찍고 간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속에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며...

〈'잘자요, 엄마'를 관람한 강원여성쉼터 어머니〉

수호는 서울에 처음 와본답니다. 친구들과 와본 서울은 정말 맛있는 건물들도 꼭차 있으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는 영화관. "니 모를 찾아서"를 봤는데 꿈 속같다네요. 거기다가 옛날 임금님들이 사시던 경복궁, 창덕궁까지..., 세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었다는 수호에게 우리는 작지만 커다란 꿈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도심속 문화나들이를 한 현양원 선생님〉

박수와 합성으로 공연내내 아이들과 교사들은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쏟아내었던 많은 웃음과 기쁨들, 그것으로도 그날의 밤하늘이 더 아름다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공연을 해주셨던 배우분들, 그리고 좋은 구경하라며 격려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깊이 생각해본 시간들이었습니다.

〈"도깨비스톱"을 보고 또 하나의 집 선생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강물의 상류가 맑고 깨끗해야 강물의 하류가 혼탁함없이 풍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빈곤과 소외, 차별과 불평등으로 그늘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이 강물의 하류를 되살리는 일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병폐와 제도의 모순을 바꾸는 것이 강물의 상류를 정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지원사업은 강물의 상류를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처음의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권익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들, 그리고 우리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 시혜가 아닌 개인의 삶과 사회의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하는 지원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숲 기금 _ 이주노동자의 귀국 후 본국 정착과 빈곤탈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나누어 빈곤의 악순환 끊기

노동으로 어렵게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대개 가족들의 생계비로 소진되기에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들의 상황은 대개 떠나올 때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종잣돈이 모이지 않으니 사업이나 장사는 엄두가 나지 않고, 다시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일조차 없고,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자니 삶 자체가 힘들어 질 뿐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로 다시 이주노동을 떠나거나 다른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 오랜 이주노동은 가족마저 해체시키고 맙니다.

가족을 위해 바다를 건너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은 몇십년 전 한국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먼저 발전을 경험한 한국이 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숲 기금”은 이주노동자들이 귀국 후 본국에서 잘 정착하고 빈곤을 탈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술교육에서부터 지역사회 경제활동을 일으키기 위한 공동체 교육, 나아가 현지 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004 더불어숲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 14개 단체 컨소시엄	전국	7,500,000원	2004년 8월	이주노동자의 귀국 후 본국정착과 빈곤탈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비타민창고, 공익활동가에게 그 문을 열다

“우리 부부는 지쳤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쉬고 싶다. 다시 일을 한다면 그때 정말 잘 하고 싶다.” 10년 넘게 각각 다른 단체에서 일해 온 공익활동가 부부의 심경입니다. 초기 20~30만원의 월급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70~8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큰 맘 먹고 1년간 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스스로를 추스르고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30년 간 더 힘차게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가는 사회복지현장과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자를 통칭하는 말로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력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공익활동에 오래 몸담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개인적으로는 지쳐갑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우리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뛰어난 현장이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떠나는 일꾼들도 늘어납니다. 이들이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기금”이 지원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2004 내일을 위한 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마을주민회 외 24개 단체 상근활동가 203명 전국 60,374,160원 2004년 2월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단체 상근활동가 안식과 재충전 지원

공익활동가, 그들의 비움과 채움

나를 찾고 세상을 보는 인도차이나반도 기행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 배진경 선전부장은 5년 상근 뒤 주어지는 2개월간의 안식휴가 동안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 한국군이 참전했던 인도차이나전쟁의 현장인 인도차이나 배낭여행을 계획했고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과 동시에 우리 역사와 닿아 있는 다른 역사의 현장, 그리고 그 곳의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2004년 4월부터 한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여행의 소회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한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원없는 한달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더라도 그때의 느낌, 그때의 생각, 그때의 감정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새벽 무렵 비행기 날개위로 떠 오르는 붉은 일출을 볼 수 있었다. 그토록 붉고 커다란 일출은 처음이었다. 태양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 같았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모성의 짧은 휴식, 그리고 영원함을 위하여

영육아시설인 서울 SOS어린이마을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어머니(생활지도교사) 9명은 베트남 SOS어린이 마을을 방문하고 다른 나라의 어린이마을도 탐방하며 동시에 짧은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들의 여행 에필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다른 나라의 SOS 어린이마을을 방문하고 싶었던 그리움이 실현되었다. 영화와 TV광고에서만 보아왔던 아름다운 세계 자연유산인 하롱베이에서는 영화와 광고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피흘려 싸운 곳, 그 긴 전쟁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재건중에 있는 베트남의 도시들과 끝없이 펼쳐지는 논과 밭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SOS어린이 마을의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휴식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여행

1999년부터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고 활동해온 주숙자대표는 그간 개인을 위한 휴식이나 남편, 딸과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청서에 “과다한 업무로 벌어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오붓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과 “샌드위치 상태의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된 가족사랑으로 더 많은 이해와 협조 속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가로서 활기있게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공익활동가, 그들이 원하는 것

2004년 기금지원신청 결과 공익활동가들은 교육, 여행, 연수 등에 대한 고른 욕구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들어 시도하기 어려운 해외연수에 대한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단순 휴식보다는 관련 기관탐방 등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여행과 연수지원 욕구도 높아 바쁜 일정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동료들이 함께 팀워크를 다지고 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활동에만 전념한 탓에 가족관계가 소원해져 가족여행을 신청한 경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우며 겪는 소진이나 부부 활동가로서 사는 것의 어려움으로 개인 재충전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어 공익활동가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만드는 변화와 대안

아름다운재단의 기획지원사업은 작은 나눔으로 큰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는 나눔중개사업, 평범한 시민들의 1%나눔으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풀뿌리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의 기획지원사업은 작은 나눔의 힘을 모아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나가고, 희망을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행복한 흥정, 아름다운 투기

나눔의 복덕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래, “나눔”을 서로 주고받는 곳입니다. 나눔의 복덕방은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주고싶은 곳을 나눔으로 연결하는 희망의 중개소이자, 아름다운 사연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처럼, 내게 꼭 맞는 나눔을 찾을 수 있는 복덕방, 나눔의 복덕방은 1년 365일 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은 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나눔을 위해 굳이 큰 돈과 큰 마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소박한 마음 하나만 갖고 나누려 하다 보면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아직 웬만큼 쓸만한 책상, 새것과 다름없는 의류, 경품으로 받은 세탁기 하나 등 이런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는 곳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직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풀뿌리 단체 살림에 컴퓨터 하나 꼭 필요한데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아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나눔의 복덕방은 작은 금액과 물품, 그리고 힘과 능력까지, 소박한 나눔을 담아내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나눔창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2004년 나눔의 복덕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 외 개인지원 5명, 노원자활후견기관 외 17개 단체	전국	62,714,480원	2004년 3월~10월	저소득 독거어르신 의치, 결식아동 특식도시락 급식 서비스 위한 대형 냉장고 등 총 22개 사례 지원

SOS모금 캠페인 _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막달레나의집” 이주비 지원

햇살 고운집 만들기

1985년 서울 용산에 문을 연 “막달레나의 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입니다. 지상의 가장 작은 방 한칸으로 시작된 이 집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개발 때문에 땅값이 치솟아 15년동안 세들어 있던 집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물도 새고 처마도 무너질 것 같은 이 집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는 이들은 연간 6천여명. 그간 희망을 찾아 막달레나의집을 두드린 여성들은 주부, 농사꾼, 의사실 사장에서 회사원 같은 평범한 인생으로 되돌아갔으며, 또한 몇몇은 후배들을 위한 성매매 지역 활동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에서는 전업을 꿈꾸는 이들이 취업교육을 받고, 공부하려는 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삶의 문을 열어왔던 이집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막달레나의 집과 함께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 여지껏 우리사회가 주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가서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2004년 SOS 모금캠페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막달레나의집”	서울	7,285,410원	2004년11월	막달레나의 집 이주 비용지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알뜰장터가 열렸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의 제안으로 열린 이 바자회에서 2학년 어린이 280명은 쓰지 않는 물건 한 두개씩을 가져와 서로 나누어 사고 팔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물려받은 원피스, 동네 문방구에서 산 반짝이풀, 하도 많이 읽어서 낡아진 만화책들, 이처럼 이날 장터에서는 장난감, 인형, 옷, 학용품같은 낡은 물건들이 다른 주인을 찾아 요긴하게 다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의 장터에서 모인 수익금은 모두 28만8천원, 이들은 이 돈을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며 아낌없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부산에 다섯형제가 있었습니다. 알뜰장터가 열리던 그때, 이 형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중학교 3학년 말형에서 여섯 살 막내까지 여섯식구가 정부지원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형이 아픈 어머니를 수발하며 네명의 동생을 돌보고 있는 이 가족이 겪고 있던 어려움은 바로 고장난 세탁기였습니다. 겨우내 고사리손으로 직접 손빨래를 하던 형제들, 궁핍한 살림에 세탁기를 살 엄두를 못내는 이들에게 여섯식구의 빨래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했습니다. 봄날 햇살은 따뜻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채 안타깝게도 이들 형제는 또래들로부터 “냄새나고 더러운”아이들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이 알뜰시장의 수익금을 좋은 일에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는 사이, 또래의 다섯형제들은 세탁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알뜰시장 수익금 28만원에 얼마안되는 돈을 보태 세탁기를 사서 다섯형제에게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친구들끼리 서로 고사리손 나눔을 주고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휴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은 자선적 시혜가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선행 투자라는 개념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각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기업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기존 기금에의 매칭기부, 독립 배분영역을 갖는 기금 개설, 공동캠페인, 행사 협찬 등 적절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품는 소망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세상의 그늘진 곳에 대한 작은 귀 기울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 공익영역의 사각지대와 기업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사적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과 그 성과를 전달하며, 임직원들이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합니다.

한솔교육 신기한나라만들기기금

지원내용 공부방 도서 및 교육기자재, 환경개선 지원

지원시기 2004년 1월~12월 (매월)

지원단체 진안 사랑공부방, 의정부 무지개공부방(몽골학교), 난곡 꿈나무공부방, 함안 열방공부방,
중계9단지 엄마공부방, 인제 원대리청년회, 인천 행복한공부방, 대구 사랑나눔기공부방,
강화 신나는공부방

지원금액 56,690,996원

해태제과 소원우체통

지원내용 12가지 주제로 소외아동·청소년이 이루고 싶은 소원지원

지원시기 2004년 1월~12월 (매월)

지원단체 개인 통영자생원 외 18개 단체, 김선미 학생 외 11명

지원금액 62,593,737원

KTF Big이지기금

지원내용 소외아동·청소년 복지단체의 IT 환경개보수

지원시기 2004년 1월~12월 (매월)

지원단체 꿈꾸는아이들의 학교,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성남푸른학교, 광주 느티나무공부방, 길동 함께사는사람들,
송현샘공부방, 양지햇살공부방, 대구 청소년자활지원관, 서울 성모의집 공부방, 부산 해봄공부방,
대전 수정공부방, 춘천 사복사랑자람터

지원금액 90,028,260원

풀무원 푸른세상을 여는 기금

지원내용 소외아동·청소년 복지단체 생태정원 조성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

지원시기 2003년 11월~12월 (매월)

지원단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늘푸른공부방, 열린문사회복지센터, 푸른나무교실, 하늘자리평화의 집, 새움터,
열린문다비다의 집, 서울 선덕원, 대전 정화원, 서울꿈나무학교, 인천부평공부방, 청주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광주오치복지관, 대구삼신보육원 성가길공부방, 따뜻한쉼자리, 세림모자원, 새날공부방,
상리사회복지관, 신애원

지원금액 97,326,010원

교보생명 희망장학금

지원내용 보육시설특소대학생 장학금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

지원시기 2004년 2월, 6월, 8월, 11월

지원단체 보육시설특소대학생 42명

지원금액 214,478,951원

교보생명 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

지원내용 저소득가정 미숙아 치료비 및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지원

지원시기 2004년 9월~10월 (매월)

지원대상 저소득가정 미숙아 김인규아기 외 19명

지원금액 41,554,154원

현대자동차 천사랑기금

지원내용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시기 2004년 8월

지원대상 김찬호 학생 외 10명

지원금액 12,402,620원

현대모비스기금

지원내용 교통사고 유자녀 중고등학생 학업보조금 및 고교입학시 교복지원

지원시기 2003년 11월, 2004년 2월, 5월, 8월

지원대상 천자문 학생 외 28명

지원금액 46,600,000원

신성이엔지 한길기금

지원내용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특소 대학생으로서 이공계 전공자

지원시기 2004년 8월

지원대상 오조원 학생 외 4명

지원금액 12,661,500원

허드슨코리아 론스타푸른별 기금

지원내용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아동·청소년의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

지원시기 2004년 10월부터 매월

지원대상 박한나 학생 외 7명

지원금액 1,200,000원

한국에자이사랑나눔기금

지원내용 치매어르신 보호가족 부담비 지원

지원시기 2004년 10월부터 (매월)

지원대상 임정례님 외 19명

지원금액 12,000,000원

태평양제약 홀로사는 노인지원기금

지원내용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시기 2003년 11월~2004년 10월 (매월)

지원대상 오덕계 어르신 외 26명

지원금액 25,573,621원

SKT 아름다운통화기금

지원내용 장애아동 근육재활을 위한 보톡스 치료비 지원

지원시기 2004년 3월

지원대상 성기준 아동 외 29명

지원금액 15,000,000원

도미노피자

지원내용 따뜻한 피자과 음료 배달

지원시기 2004년 3월~10월

지원대상 공부방, 청소년 쉼터, 이주노동자센터, 장애인단체 등 159개 단체

지원금액 피자 2,567판

장원 서성환의 아름다운세상기금이 만드는 희망가게



희망가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세상 기금은 가난한 어머니와 그 자녀가 함께 사회의 공공부조에서 벗어나고 빈곤의 세대적 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보다 자립할 수 있는 교육과 소규모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머니와 그 자녀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세상 기금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희망가게는 모자가정세대의 희망에 따라 음식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되는 가게들은 개별 상호와는 별도로 희망가게라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돕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아름다운세상 기금으로 지원되는 희망가게는 가난한 어머니와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가게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저소득여성가장 창업공동체	서울	162,356,460원	2004년 7월	저소득여성가장의 자립을 위한 희망가게 창업자금 및 교육컨설팅

희망가게 1호점 “미재연”

“미재연”은 아름답고 재미있고 자연이 있는 식탁이라는 뜻으로, 세 분의 1호점 공동체 어머니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지만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철 재료와 천연조미료를 사용하여 입맛을 끌어당기는 강한 맛은 없지만 먹고 나면 속이 편한, 집에서 먹는 밥처럼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입니다.

미재연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재동110-1 헌법재판소옆 / 전화 02-745-8777

희망가게 2호점 “얼큰하게 땡기는 날”

희망가게 2호점 “얼큰한게 땡기는 날”은 두 분 어머니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로 11월30일 문을 열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매콤 칼국수를 중심으로 맛있는 파전과 동동주를 함께 팔고 있는 희망가게 2호점, 얼큰한게 땡기시는 날 꼭 방문해 주십시오. 구매가 곧 나눔이 되는 희망가게, 가족과 함께 방문해주시면, 맛있는 음식 속에 희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큰하게 땡기는 날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40-2

지하철 상계역 1번출구 근처 / 전화 02-3391-1314

아름다운세상 기금은 (주)태평양 설립자인故 장원(莊源) 서성환회장의 유가족들이 여성과 아동복지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 그 의 유산인 태평양 주식 50억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여성과 아동 복지를 위한 고인의 뜻도 아름답지만, 그 뜻을 소중히 지키는 가족들의 아름다운 결정은 우리사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무료법률봉사

희망을 그리는 길, 공감이 함께 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non-profit public lawyers' group)입니다.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4년 11월 현재 4명의 상근변호사와 1명의 상근간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 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 활동’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되어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케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흐름들이 효과적으로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공감은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피해여성 영역(다시함께센터, 전북성매매 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자립지지공동체), 이주노동자 영역(외국인이주노동자문제 협의회,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여성인권센터), 장애인 영역(교남소망의 집,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일반(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한솔종합복지관) 등 4개 영역에서 11개 단체를 선정하고, 공익변호사들을 파견하여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1개 단체에 파견된 공감의 공익변호사는 법률자문,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률안 마련, 제도와 정책 연구, 실무자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작성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공익단체들은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가와 함께 활동하는 '공익 변호사 파견 사업'을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공감은 2004년 9월 중순으로 1차 파견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진행되는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에서는 총 12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고, 1차 파견사업시 공감이 지원하였던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인의 4개 영역에 속한 단체 이외에 장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견사업 이외에도 공감은, 첫째로 공익소송을 발굴·기획하여 진행함으로써 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둘째로 공익단체와 공익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 간에 네트워크(Beautiful net)를 구축,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변호사들에게는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로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공익활동의 범위 확대를 위해 인턴쉽과 펠로우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과연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보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7월 한달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최저생활 수준을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하여 확인하고,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실제계측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며,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 정부의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아데다가, 지난 5년 동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저생계비가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최저생계비로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희망 업그레이드”는 시작될 것입니다.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관련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하월곡동 독거어르신, 장애인가구 햇살놀이방	서울	23,152,960 원	2004년 7월	복날 복나누기 마을잔치 및 햇살놀이방 가족 여름소풍

<http://www.hopeup.net>를 방문하시면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를 마치며

한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을지, 최저생계비가 보장해 주는 생활의 수준은 어떠한 것인지, 물음을 안고 하월곡동 산 2번지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했던 것은 산 2번지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편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저생계비 생활체험을 통해 스스로가 빈곤층과 정책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편견, 휴대폰이나 젤은 사치라는 편견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국민의 세금을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주어야 되느냐는 일반시민들의 비난에 힘들었습니다. 지난 한달의 생활은 그런 “편견”을 마음에서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희도 최저생계비를 용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한 달을 지내고 보니 최저생계비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저희가 경험한 최저생계비는 그저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었을 뿐입니다. 햇벌이 제대로 들지 않아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재래식 화장실에 제대로 씻을 곳 하나 없는 집에서 최저생계비가 책정하고 있는 주거비를 상회하는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손에 쥐었다 놓았다 하며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전화비를 아끼기 위해 전화를 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한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한달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빈곤문제가 결코 최저생계비를 몇 만원 인상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부조사를 통해 하월곡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그저 밥만 먹고 지내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영양가 없는 식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았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맡놓고 가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한달 경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실계측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빈곤문제를 시혜나 복지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한 달 체험을 마쳤습니다. 한 달 동안 잠시 다녀가는 저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신 산 2번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이 되면 산 2번지에도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가난의 흔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론가 내몰리게 될 산 2번지 식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4년 8월 2일,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

전화위목의 지원사업

등불기금

시작도 못해보고 ...

청소차 옆에 허름하게 서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좁고 열악해서 과연 제대로 쉴 수나 있을까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환경미화원에게는 고단한 밤 근무를 마치고 쉼을 청하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휴게실은 두 다리를 쭉 펴기에 너무나 비좁고 차가운 손을 비벼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등불기금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의 안위를 위해 힘겹게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등불기금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내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불발에 그쳤습니다. 지원사업 소식을 접한 서울시가 자체 특별교부금으로 14개 자치구 256개소에 전기를 이용한 최신형 난방기를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재단 등불기금의 첫 배분사업으로 실행되진 못했지만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시설이 서울시에 알려지고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전화위목이 된 셈입니다.

이제 다시 고심하며 등불기금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겨울을 예고하는 낙엽을 쓸어담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되새기며 내일 아저씨를 만나면 꼭 이 한마디를 잊지 않고 전하렵니다. “날씨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늘 감사합니다.”

꿈틀기금

한번이면 충분할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등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미납금액을 지원했던 꿈틀기금. 첫 지원사업 당시 3만명이 넘는 등록금 미납 고등학생중에 극히 일부만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놓고 고심한 끝에, 결국 등록금 미납율이 높은 경남, 전남지역의 도서지역 학생들 가운데 한부모, 조손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11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여론화를 통해 등록금 체납의 문제는 우리사회 빈곤과 교육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부각되었고, 2004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6만명에게 체납 등록금을 포함하여 166억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에는 교육부문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발표, 고교생 학비지원 대상을 현재의 6.8%(124,000명)에서 2008년까지 10%(175,000명)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꿈틀기금이 한차례 지원으로 마무리되면서 아쉬운 점도 많지만 정부의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실현을 위해 등록금 미납 학생의 현황조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꿈틀기금은 저소득 빈곤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곳을 발빠르게 찾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ing...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

1%기금 지원사업

하나가 백이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사회에 풀뿌리단체가 없다면 우리는 부모의 보살핌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을 우리의 집에 데려와 키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풀뿌리단체가 없다면 홀로사는 노인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 세끼 식사를 챙겨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직접 일자리를 구해주어야 하고, 우리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바꾸어가야 하는 힘든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풀뿌리단체는 우리사회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삶의 터전인 우리동네, 우리마을이라는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빈곤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잘사는 우리동네를 만들고자 민간사회안전망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기에 내가 사는 곳이 그나마 살만해지고, 또한 우리동네를 시작으로 우리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풀뿌리단체들은 우리들의 지원이 없다면 활동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풀뿌리시민의 나눔으로 만들어진 1%기금으로 풀뿌리단체에게 희망이 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이빠진 동그라미”, “개미스폰서”의 이름으로 풀뿌리단체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고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뿌리 지역단체의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신규사업과 복지운동, 더불어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운영비가 30% 미만인 단체로 총 15여개 단체에게 연간 각 1,500만원씩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빠진 동그라미

풀뿌리단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그 하나가 없어 이빠진 동그라미처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빠진 동그라미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풀뿌리단체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기자재나 물품을 2004년 연말까지 각 단체별로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개미스폰서

사업의 홍보, 후원자 개발을 위해 행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캠페인을 통해 여론형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행사나 캠페인을 선뜻 후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개미스폰서 사업은 2004년 연말까지 각 단체별로 300만원 한도에서 풀뿌리단체들의 재미있고 독창적인 행사,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행사를 지원합니다.

2000년 10월, 네 명의 기부자가 내어주시신 8만원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아름다운 1%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들레흙씨처럼 나눔이 퍼져나가 이제는 1만6천여 명의 기부자와 20억원의 큰 기금으로 모여졌습니다. 이제 아름다운재단은 1만6천여 명 기부자의 이름으로 “1%나눔이 세상을 바꾼다”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의인을 찾습니다. 좀더 살기 좋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묵묵히 땀흘리는 풀뿌리 활동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돈,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위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는 공익제보자.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들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좋은 변화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 집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우리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숨은 의인, 그분들께 우리 사회를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2004 아름다운 사람들 심산활동가상에는 관악사회복지 상근활동가들과 만석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민들레흙씨상에는 두레방 주민활동가 김경순님, 안성의료생협설립자 이안동님, 빛과 소금상에는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의 부실한 혈액관리에 대해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 4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아름다운사람들 시상내용

구분	시상명	시상대상	시상내용
활동가부문	심산활동가상	풀뿌리단체의 상근자로서 활동하여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일반시민부문	민들레흙씨상	자원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다양한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숨은의인부문	빛과소금상	타인을 위해 신체상해를 입거나 공익제보를 통해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상패와 상금 300만원

봄바람에 취해 공간에서 울다

엉뚱하기로 소문난 간사와 사고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간사 둘이 사업이 끝난 후 엉엉 울어버린 사연. 봄벌 가득한 아름다운재단 마당에는 한 의류업체에서 기증받은 재고의류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 새옷을 입고, 옷어보자 활짝” 행사를 앞두고 6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마치 쇼핑하듯 골라가져갈 수 있도록 옷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기별로,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박스에 담고 테이프를 부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작업은 어두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이었습니다. “옷이 참 많다”라는 순간의 단순한 생각은 행사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막상 박스를 뜯어보니 유난히 똑같은 박스에서 유난히 똑같은 색깔의 옷이 많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황색과 파란색의 긴팔 티셔츠. 나중해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기증받은 4,000여벌의 옷 중에 그 두 종류가 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다”는 생각을 했으니 “봄바람에 취했다”라고 할 수 밖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행사장 앞마당에서 긴급 임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자 핸드폰을 들고 인맥과 혈연, 학연까지 동원해 여기저기 기증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냈지만 시시각각 행사장의 의류는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쇼핑몰처럼 형형색색 잘 차려 놓았건만 어느새 행사장은 우중충해져만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사들은 각자 긴급지원금을 동원하여 동대문으로, 용인으로, 대형할인마트로 물건을 구입하러 다녔고, 그렇게 긴급 공수해온 옷들로 인해 간신히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날 행사장을 방문했던 아이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아이들을 인솔해 온 단체에게는 사과문을 발송해야 했습니다. 결국 행사가 끝나갈 무렵 문제의 두 간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공간은 기업의 잉여물품을 적절한 곳에 분배하는 새로운 기증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기증받은 의류를 지원받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선호와 무관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증물품을 진열해놓고 직접 찾아와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온통 황색과 파란색의 티셔츠뿐이었으니. 얼마나 많이 남았으면, 그날의 황색과 파란색의 긴팔 의류 간사들과 자원활동가들의 행사복으로 제공되었으며, 그 옷을 몇몇 간사들은 아직도 즐겨 입고 출근합니다. 두 간사는 그 옷을 볼 때마다 아직도 등줄기가 서늘해진다고 합니다.

며칠전 의류를 기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차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간사, 다시는 아름다운공간을 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건만 거어이 “곳간 다시하면 안되나요”라는 말을 쏟아내는 찰나, 그동안 그 간사의 사고수습에 힘겨웠던 팀장님 딱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대구?”

땡땡이치고 만들어낸 나눔의 결혼식

“지체장애인 부부의 결혼식을 도와주세요.”

10월 초 어느 날 퇴근하려는 찰나, 인천의 장애인생활시설 예림원 사회복지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사랑을 키워온 두 지체장애인 커플 (김영길♥서용순, 최인수♥이은경)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너무 많은데 경비가 많이 들어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간사는 정작 자기의 업무를 “땡땡이”치고 결혼식 만들기엔 두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이 “땡땡이간사”는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최첨단 “나눔의 오작교 시스템” (“나눔의 오작교 시스템”이란 아름다운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21세기형 최첨단 정보 시스템. 고도의 나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대한 기쁨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가공할만한 힘을 가졌으며 아톰, 태권V도 허를 내두르며 두손을 든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음)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청과 동시에 인공지능 “나눔의 오작교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동된 지 한 달 만인 11월 12일, 예림원 강당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나눔의 오작교 시스템의 도움으로 신랑, 신부를 아름답게 빛내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웨딩 컨설팅업체 낮은 울타리에서 나누어 주었고 예쁜 신부화장과 올린 머리는 이철헤어커커에서, 그리고 신부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준 부케와 가족들 꽃은 네이버와 “토지머지”란 꽃집에서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함께하는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에 이 커

플의 기사가 나간 후 제주도 신혼여행을 후원해 주신 마음 따뜻한 분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풍선으로 결혼식장을 꾸며주신 분들도 계셨고, 어느 사진작가의 전문성기부로 웨딩앨범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으로 만든 결혼식을 무사히 행복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결혼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유난히 빛난 것은, 전문성과 재원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분들이 지닌 마음속의 보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길♥서용순 씨, 최인수♥이은경 씨 결혼 축하합니다!!!”

맹맹이의 사족

이 분들의 결혼 준비과정과 결혼식을 지켜보며 맹맹이 간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지체장애라는 명칭을 달아서 맹맹이 간사도 따라서 쓰기는 합시다만 도대체 지체장애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들을 봐서는 전 지체장애의 정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체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따라붙지 않는 일명 비장애인이라는 맹맹이 간사와 그분들이 다른 점이라고는 그분들은 한없이 순수하시다는 것과 계산 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점 뿐. 사진 촬영을 위해 신부화장을 하던 날 미용실에서 신부 용순 씨의 안경에 흠이 갈까 안경을 천에 둘둘 말아 안경집에 고이 넣으시는 영길 씨를 보며, 그리고 예원원에서 아이를 입양해 키우시겠다는 그분들을 보며 전 지체장애란 말을 더더욱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쌀포대 화환으로 나눔을 서약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며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오승열, 오윤경님은 지난 10월23일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인들에게 축하화환대신 쌀포대를 받기로 한 것. 이날 남산 한옥마을에서 전통 예식을 치른 오승열, 오윤경님의 예식장 들머리에는 축하 화환 대신에 20kg짜리 쌀 50포대가 그 어떤 화려한 화환보다 아름답게 쌓여 오가는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쌀 한포 한포의 겉포장에는 쌀값을 보내준 이들의 이름과 직함을 큼지막하게 쓰여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쌀포대 화환. 이렇게 해서 모여진 20kg 쌀 50포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하월곡동 주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들의 월동준비를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승열, 오윤경님은 3년 전 디자인 업체 “아일비백”을 함께 창업해 동고동락하다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화환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오승열, 오윤경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를 쌀로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자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생각에 양가 부모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시면서 청첩장에도 화환대신 쌀 한 포대를 보내달라는 문구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쌀이 총 50포대, 이 쌀은 월곡 3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총 50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트럭 가득 실린 쌀 50포대는 낮은 지붕들과 회색빛 좁은 골목을 누비며 잠시나마 마음 시린 이웃들의 삶을 살짝 보듬어 주었습니다.

지원사업, 숨겨진 뒷 이야기 4

080-333-9413을 기억하세요

아름다운재단 나눔의 복덕방에서는 빈곤긴급전화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빈곤긴급전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고 정부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교기관, 복지기관, 독지가, 혹은 복지단체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빈곤긴급전화 홍보 스티커가 제작되고, 몇 달후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긴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 들어왔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온 울산 여학생은 김군자할머니기금의 지원을 받고 새학기에도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의지할 부모, 친인척 한명 남지 않은 이 여학생이 등록금과 생계비 마련에 애태우며 학업을 포기하려던 어느날, 바로 그 빈곤긴급전화 스티커와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곤긴급전화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을 소개받고 마침내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말 작은 스티커 제작을 후원했을 뿐인데, 힘든 시기에 처한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니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시면 지금 이 전화를 알려주세요. 긴급전화 080-333-9413입니다.

선희의 하얀 앞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고등학교에서 올해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유수정입니다. 웃음이 아주 해맑고 부지런한 선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메일을 띄웁니다. 선희는 천안시 삼왕동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버스를 두번씩이나 타고 1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해서 선희가 두 동생과 함께 복지 시설에 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나 가슴 아픈 사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중에 선희에게 이상 버릇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을 때 입을 벌리지 않더라구요. 손으로 가리며 말을 하기도 하고, 알고보니 사고로 앞니 두개가 없어졌어요. 마음 아파하며 무심히 잊고 지냈는데 요즘 선희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없어진 앞니 두개와 그 옆의 이들이 까맣게 변해 있더군요. 아마도 치료를 받지 않아 신경이 죽은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밝게 지내고 있지만 한창 사춘기 여자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붉어지고 합니다. 병원을 함께 가보고 싶지만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 같고 고민 끝에 이곳에 도움을 청해 봅니다."

과연 선희의 앞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흐뭇한 소식입니다. 이리저리 궁리 끝에 아름다운재단 나눔의 병원으로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는 천안의 치과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흔쾌히 무료치료를 승낙해주셔서 지금 한창 치료가 진행중입니다. 곧 선희가 하얀이를 드러내고 웃는 날을 볼 수 있겠죠?

참여하는 나눔사업

아름다운재단 물래산타 캠페인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산타가 몰래몰래~

지난 2003년 크리스마스, 마음 속으로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두운 소식만이 전해지는 추운 겨울날들, 궁핍한 생활환경으로 마음까지 얼어붙은 아이들에게 지금까지의 크리스마스는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지금껏 선물 하나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아이들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12월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전국 2,093명의 빈곤가정 아이들에게 아무도 몰래 얼굴없는 “나눔산타”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단 한번의 관심과 선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나눔을 통해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며 마음의 가난함만이라도 잊게 해주고 싶습니다.

2004년에는 물래산타가 영구임대주택의 저소득가정을 찾아갑니다. 1500여명의 아동들에게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신청받았고, 전국의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나눔산타”가 12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아이들을 찾아가 예쁜 성탄카드와 함께 원하는 선물을 전해줄 것입니다.

2003년 물래산타 캠페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역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프로그램
전국 106개 공부방	전국	112,561,200원	2003년 12월	저소득지역 공부방 아동들이 신청한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공부방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케이크 지원

2004년 물래산타 캠페인은 12월 1일 아름다운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래산타 게시판에 올려진 아이들의 사진을 선택하여 기부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물래산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 하나를 선물하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산타클로스는 살아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금별 모금·지원 금액

지난 4년간 기부자님들께서 모아주신 각 기금에 기부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또 기부금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두 보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기금별 모금, 배분금액

아름다운재단 기금별 모금총액

영역	기금명	기금 모금 수입					모금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공익 일반	최달석목사님유위헌추모기금			35,000,000	35,000,000	182,000	70,182,000
	청년동지기금					240,000	240,000
	국제NGO연대기금			70,400,000	2,150,000	20,000	72,570,000
	내일을위한기금	1,000,000,000			1,931,800	3,106,100	1,005,037,900
	의인가금		720,000	120,000	143,275,340	20,014,762	164,130,102
	심산활동가기금			20,000,000	260,000	330,000	20,590,000
	동불기금			20,215,160	67,839,570	61,955,540	150,010,270
	공익출판기금		300,000	698,700	5,102,260	1,720,585	7,821,545
	더불어숲기금			11,000,000	5,422,266	52,489,735	68,912,001
	공익번호사기금			30,000	52,264,000	110,696,300	162,990,300
	소금향고기금				7,570,000	1,790,240	9,360,240
	녹색꿈나무기금				11,300,500	11,998,000	23,298,500
	소계	1,001,020,000	1,001,020,000	157,463,860	332,115,736	264,543,262	1,755,142,858
교육	빈곤 빛한줄기희망기금				160,638,420	48,462,231	209,100,651
	천사랑기금			40,000,000	20,000	40,245,000	80,265,000
	희망장학금기금				186,781,727	206,751,823	393,533,550
	김군자할머니기금	54,381,930	7,958,080	10,570,000	49,111,840	13,324,537	135,346,387
	한길기금					54,610,000	54,610,000
	로레알코리아기금			10,000,000			10,000,000
	주경아록기금			150,000	107,937,860	11,656,000	119,743,860
	대덕테크노밸리기금					300,000,000	300,000,000
	현대모비스기금				71,401,244	88,792,480	160,193,724
	꿈틀기금				68,200	140,225,131	140,293,331
	아름드리기금					165,965,000	165,965,000
	EG기금					50,061,000	50,061,000
	메가스터디기금		40,000,000		20,000	250,000	40,270,000
	소계	54,381,930	47,958,080	60,720,000	415,340,871	1,071,880,971	1,660,281,852
	기타 행복한동지기금			10,062,790	4,327,000	3,829,000	18,218,790

	이한태기금		10,000,000	12,000,000	13,000,000		35,000,000
기타	신한지주회사금융기금					750,000,000	750,000,000
	소계		10,000,000	22,062,790	17,327,000	753,829,000	803,218,790
	나눔의복덕방기금					196,465,902	196,465,902
	멀치한상자기금		300,000	807,000		1,107,000	
기획	SOS기금			26,220,580	287,117,347	46,427,610	359,765,537
	1%기금	12,688,564	108,100,451	244,349,812	879,509,462	1,063,375,994	2,308,024,283
	소계	12,688,564	108,400,451	271,377,392	1,166,626,809	1,306,269,506	2,865,362,722
	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61,872,000	70,263,455	132,135,455
	한국에자이기금					30,000,000	30,000,000
노인	은빛겨자씨기금				66,193,751	30,541,342	96,735,093
	마이너스건강기금				14,097,344	11,483,724	25,581,068
	소계				142,163,095	142,288,521	284,451,616
	행복한섬표기금				56,164,877	21,992,193	78,157,070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거기금			111,000,000	341,270,000	1,754,000	454,024,000
문화	꿈꾸는나무기금					65,060,230	65,060,230
	소계			111,000,000	397,434,877	88,806,423	597,241,300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2,229,500	63,419,950	161,988,814	37,621,770	265,260,034
	휴머스			6,770,000	9,191,000	8,226,360	24,187,360
	대니서만들기기금		5,567,690		1,402,300	15,713,550	22,683,540
아	BigX기금				171,000,000	20,000	171,020,000
동	푸른세상물여는기금				144,000,000	56,150,000	200,150,000
/	오필승코리아기금			65,500,000	34,045,000	308,000	99,853,000
청	술기금			403,520,000	63,833,750	146,944,420	614,298,170
소	하라기금				600,000,000	800,080,000	1,400,080,000
년	희망특공대기금		66,032,600	166,076,130	62,964,450	27,851,700	322,924,880
	소원우채통기금		6,000,000	78,280,000	116,537,020	131,718,710	332,535,730
	대웅제약					30,000	30,000
	푸른별기금					71,337,600	71,337,600
	소계		79,829,790	783,566,080	1,364,962,334	1,296,002,110	3,524,360,314
	탁아기금	31,000,000		75,000	7,292,700	14,692,800	53,060,500
여성	당신의햇살기금			101,275,000	86,306,535	56,380,458	243,961,993
	아름다운세상기금				5,139,876,000	2,113,080	5,141,989,080

	소계	31,000,000	101,350,000	5,233,475,235	73,186,338	5,439,011,573
	기부문화연구소기금				103,523,000	103,523,000
연구	류무종도서관기금	5,000,000	15,605,000	11,194,500	103,889,720	136,689,220
사업	연꽃기금			80,000,000		80,000,000
	유한킴벌리		45,000,000			45,000,000
	소계	5,000,000	60,605,000	91,194,500	207,412,720	364,212,220
	건강한이세상기금		10,000,000	2,077,000	12,361,100	24,438,100
의료	다솜아작은숨결살리기기금				276,346,100	276,346,100
	소계		10,000,000	2,077,000	288,707,200	300,784,200
	이철혜어커커		10,708,700	4,972,250	311,000	15,991,950
	송진우기금		15,200,000	6,293,570	53,081,400	74,574,970
장애	아름다운통화기금			20,000,000	23,622,254	43,622,254
	선희샘물기금		10,000,000	979,000	123,521,660	134,500,660
	소계		35,908,700	32,244,820	200,536,314	268,689,834
재해 및 구호	E-아름다운기금			1,085,356,142	140,000	1,085,496,142
	소계			1,085,356,142	140,000	1,085,496,142
현물	현물기부	39,258,572	45,469,600	12,405,850	129,936,945	227,070,967
기부	소계	39,258,572	45,469,600	12,405,850	129,936,945	227,070,967
	롯데리아기금	40,000,000				40,000,000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	25,776,062				25,776,062
가급의 전담	박고태기금		150,100,000	-28,690,535		121,409,465
	도움넷기금	37,260,530	3,115,457	235,154	10,000	40,621,141
	소계	40,000,000	63,036,592	153,215,457	-28,455,381	227,806,668
	합계	143,070,494	1,349,503,485	1,812,738,879	10,424,907,308	5,872,011,541
						19,602,231,707

아름다운재단 기금별 지원총액

영역	기금명	기금 모금 수입					모금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공익	최달석목사님을위한추모기금			34,612,489	34,604,377		69,216,866
일반	국제NGO연대기금			9,268,393	20,121,458	12,361,600	41,751,451
	내일을위한기금			9,523,910	14,087,370	60,374,160	83,985,440

공익	다불어슬기금				7,500,000	7,500,000
일반	공익번호사기금			2,133,200	132,315,386	134,448,586
	소계	-	-	53,404,792	70,946,405	212,551,146
빈곤	빛한줄기희망기금			3,051,240	34,945,230	37,996,470
	천사랑기금				12,402,620	12,402,620
	희망장학금기금			161,548,927	214,478,951	376,027,878
	김군자할머니기금	7,860,300		21,034,500	16,084,500	44,979,300
교육	한길기금				12,661,500	12,661,500
	현대모비스기금			24,200,000	46,600,000	70,800,000
	꿈틀기금				66,599,430	66,599,430
	메가스터디기금	15,000,000				15,000,000
	소계	-	22,860,300	-	206,783,427	368,827,001
	나눔의복덕방기금				62,714,480	62,714,480
	SOS기금		24,705,080	224,424,678	42,472,441	291,602,199
기획	1%기금		2,500,000	67,570,374	19,709,450	89,779,824
	소계		27,205,080	291,995,052	124,896,371	444,096,503
	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7,425,000	25,573,621	32,998,621
노인	한국에자이기금				12,000,000	12,000,000
	소계	-	-	-	7,425,000	37,573,621
	행복한섬표기금			3,950,000	7,218,850	11,168,850
	혼자만잘살문무순재민거기금				26,302,015	26,302,015
문화	꿈꾸는나무기금				7,300,000	7,300,000
	소계			3,950,000	40,820,865	44,770,865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32,734,950	64,475,410	97,210,360
	휴머스		1,310,000	765,000		2,075,000
아	대니서만들기기금				2,000,000	2,000,000
동	Big지기금			44,516,710	90,028,260	134,544,970
/	푸른세상을여는기금			30,518,280	97,326,010	127,844,290
천	오필승코리아기금		3,616,800			3,616,800
소	술기금				26,263,770	26,263,770
년	하라기금				14,872,700	14,872,700
	희망특공대기금		94,886,133	84,855,617	56,690,996	236,432,746

	소원우체통기금		58,189,880	77,949,100	62,593,737	198,732,717
	푸른별기금				1,200,000	1,200,000
	소계	-	-	158,002,813	271,339,657	422,750,883
	당신의햇살기금			167,000	12,423,793	12,590,793
여성	아름다운세상기금				162,356,460	162,356,460
	소계	-	-	-	167,000	174,780,253
	기부문화연구소기금				7,291,948	7,291,948
연구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기금	2,891,800	14,851,018	5	36,344	1
					4,679,775	32,958,937
사업	유한킴벌리		37,865,898	1,500,000	170,750	39,526,848
	소계	-	2,891,800	52,706,916	2,036,344	22,142,473
	건강한이세상기금				4,143,100	4,143,100
의료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41,554,154	41,554,154
	소계				45,697,254	45,697,254
	이철해어커커				1,200,000	1,200,000
	송진우기금				12,000,000	12,000,000
장애	아름다운통화기금				15,000,000	15,000,000
	선희샘물기금				50,000,000	50,000,000
	소계	-	-	-	13,200,000	65,000,000
재해 및 구호	E-아름다운기금				42,000,000	42,000,000
	소계				42,000,000	-
						42,000,000
현물	현물기부	30,460,000	33,880,000	11,405,850	125,096,945	200,842,795
기부	소계	30,460,000	33,880,000	11,405,850	125,096,945	200,842,795
	롯데리아기금	35,503,500				35,503,500
기금의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		19,496,000	3,000,000		22,496,000
전담	박고테기금		116,850,207	-3,028,440		113,821,767
	도움넷기금	31,593,230				31,593,230
	소계	-	67,096,730	136,346,207	-28,440	-
	합계	-	123,308,830	461,545,808	924,271,535	1,667,782,042
						3,176,908,215

책을 덮으며

그저 대신하는 것일 뿐인데

지원사업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사 선생님, 활동가 분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디 귀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기부자님들의 일을 대신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 기부자님들께 다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소중한 일을 대신 할 수 있게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나눔으로 인해 조금씩 밝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기부자님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만,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행일 2004년 12월7일 | 발행인 박상증 | 편집인 박원순 | 기획 아름다운재단 간사들 | 편집디자인 상상가가 |
아름다운재단 주소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호 | 전화 02-766-1004 | 전송 02-730-1243 |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 이메일 give@beautifulfund.org

이 제작물은 디자인 전문회사 상상가가(02-322-0758)의 디자인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